



작은 아기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 집중치료와 전문수술로 생명을 구한다

고려대 안산병원 신생아 전문관리 및 수술

고려대 안산병원이 신생아 관리 및 수술 분야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선보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신생아 중환자실을 중심으로 한 치료 및 수술에 있어서는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환자들이 찾고 있으며,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간담체, 대장항문 및 일반 외과 등 다양한 전문 영역의 협진 시스템을 통해 국내 선도적인 의료 수준을 선보이고 있다. 이는 아기의 생명을 구하는 새로운 진료 시스템을 발전시킨 것으로 신생아 치료의 전문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신생아 관리에서부터 전문적인 심장수술, 간 이식 수술, 뇌수술, 구순구개열 수술, 심장중재술 등 일찍 세상에 태어난 미숙아들에게 꼭 필요한 수술 및 시술을 전문적으로 실시해 생존율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종합적 진료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고려대 안산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관리에서부터 치료, 수술까지 원스톱으로

안산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을 찾는 아이들은 보통 조기 출산이나 선천성 기형때문에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아이들은 성장이 더디거나 꼭 필요한 장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등 건강상의 문제를 겪게 된다. 또한 미숙아에게 특히 위험한 것이 바로 합병증, 신체의 발달이 늦거나 2차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은 아직 면역체계가 완벽하지 못한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안산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은 전문적인 간호시스템을 바탕으로 의료진의 24시간 대기 등을 통해 최상의 진료를 선보이고 있다. 신생아 중환자실 최병민 교수(소아청소년과)는 “아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질병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심장기형, 폐질환, 뇌기형, 구순구개열, 위장관 기형, 간 이상 등 다양한 질병에 대해 체계적으로 감시, 치료를 실시해야 한다” 며 신생아 중환자실의 시스템을 설명한다. 이와 같은 관리 시스템을 중심으

로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전문적인 시술과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생아들의 생명을 이어가려는 의료진의 노력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심장치료, 전문성을 더한다.

보통 미숙아에게는 동맥관 개존증을 비롯하여 많은 심장 이상이 발견되게 된다.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아기들이기 때문에 심장 발달의 지연, 판막이상 및 혈관기형 등 다양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안산병원은 첨단 검사 장비를 바탕으로 신생아 심장 질환의 정확한 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치료 역시 환자에 따라 치료를 세분화해 실시하고 있다. 이는 심장병의 치료에 있어서 내과적 중재시술과 외과적 수술을 진단에 따라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고려, 치료시기, 방법 등을 심사숙고해 결정하고 실시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선천성 심장병의 내과적 중재시술에는 소아청소년과 장기영 교수가 그

동안 100여건이 넘는 중재시술을 바탕으로 최상의 진료를 선보이고 있다. 장기영 교수는 “아이들의 심장 상태에 따라 중재시술을 실시, 치료의 효과를 높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이들이 빠르게 건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며 치료과정을 설명한다. 또한 수술이 결정된 경우에도 다년간 소아심장수술에 있어 탁월한 성과를 보인 흉부외과 박형주 교수 역시 전문적 심장 수술을 통해 아이들에게 가장 최상의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선천성 심장병이 있는 아이들에게 내과적, 외과적 치료를 동시에 선택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아기들의 치료 효과를 높일 뿐만 아니라 협진을 통한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고 있어 환자의 만족도 역시 타 병원보다 높다.

신생아 선천성 기형, 조기 발견부터 수술까지

이 밖에 안산병원은 성형외과, 신경외과, 대장항문외과, 간담체외과, 상부위장관외과 등 해당분야의 수술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

- 2면에 계속 -



- 1면에 이어 -



있어 신생아 치료의 새로운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다. 그 대표적인 수술이 바로 대장항문관련 수술이다. 신생아들의 소화기계 기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선천성 장협착 및 장폐쇄, 선천성 거대 결장, 밀폐항문 등이 발견되면 대장항문외과와의 원활한 협진을 통해 조기에 수술을 시행하여 좋은 치료 성적을 거두고 있다. 특히 이 분야의 권위자인 대장항문외과 민병욱 교수가 수술을 집도함으로써 수술의 전문성을 더하고 있다. 민병욱 교수는 “신생아의 선천성 소화기계 기형은 조기 진단, 적절한 수술, 수술 후 체계적인 관리가 모두 이루어 질 때 좋은 치료 성적을 얻을 수 있으며, 안산병원의 경우 소아청소년과와의 원활한 협진을 통해 지금까지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성형외과적 수술 역시 성형외과 윤율식 교수와의 체계적인 협진을 통해 이뤄진다. 선천적으로 구순구개열(언청이) 때문에 우유를 제대로 먹지 못하거나 신체의 부분적 기형 등 빠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성형외과와 지속적인 상담 및 협진을 실시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높이고 있다. 성형외과 윤율식 교수는 “성형은 미용을 하기 위한 것이면서도 아이가 자랐을 때 최소한의 상처만 남게끔 수술을 해야 한다. 안산병원 성형외과는 이를 위해 맞춤 성형수술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신경외과 김상대 교수와의 협진 역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스템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수술과 치료,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시스템, 환자에게 맞춤 치료를 제공하는 협진, 신생아 중환자실을 중심으로 한 One-Stop진료를 실시함으로써 안산병원은 지역에서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미숙아 치료에 있어 독보적인 위치를 이어가고 있다.

미숙아 치료의 전문성을 더 한다

고려대 안산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은 소아청소년과 뿐만 아니라 흉부외과, 성형외과, 간담췌외과 등 다양한 진료과와 유기적인

협진시스템을 구축, 아기에겐 언제 발생할지 모를 합병증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특히 신생아의 경우 감염뿐만 아니라 각종 합병증으로 인해 생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과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진료의 전문성과 더불어 아이의 건강을 체크하는 전문적인 간호 시스템,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의료진의 확보 등 다양한 요소들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고려대 안산병원은 신생아 치료에 있어 이러한 요소들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 명성 높은 의료진에 의한 전문적인 진료까지 실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신생아 치료 및 수술 전문병원으로써 위상을 높이고 있다. 앞으로도 안산병원은 신생아 치료에 있어서 전문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시설, 장비 등의 첨단화를 통해 국내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진료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헬스가이드 1

인공관절 수술로 부모님께 효도한번 해볼까 계단과 오르막 뿐만 아니라 보행도 어렵다면 인공관절 수술 고려해 볼만



노화로 인해 걸음이 어려운 경우 대부분 무릎 등의 관절 부위가 이상이 생겨 일어나는 대표적인 증상으로 볼 수 있다.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서 관절의 마모가 심해지거나 지긋지긋하다는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그렇다면 한 번 이상이 생긴 관절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이 바로 인공관절 수술이다.

인공관절 수술, 간단하게 건강을 찾다

인공관절 수술은 질병이나 노화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관절을 인공관절로 교체해 줌으로써 통증을 없애고 정상적인 보행을 가능하게 하는 수술이다. 인공관절수술은 손상된 관절 뼈의 일부를 제거해 인공관절을 삽입하고 변형된 다리모양을 교정한다. 특히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보행을 할 수 있도록 자세를 잡아줌으로써 보행의 편의를 도와 환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인공관절 수술은 정확한 제반 검사를 통해 수술할 부위와 위치를 확인해 실시하며 수술시간은 약 1~2시간 정도 소요된다. 또한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후 일주일 정도 지나면 근력 운동을 실시할 수 있으며 무리하지 않는 한 걷는 것 역시 가

능하게 된다. 그리고 수술을 실시한 후 한달이 넘으면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지고, 수술 6개월이 지나면 작은 통증도 사라지게 된다. 이런 인공관절수술은 수술이 오래걸리지 않고 회복기간이 빨라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있다.

첨단 내비게이션 수술, 오차를 줄인다

얼마 전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인공관절 ‘컴퓨터항법 유도장치’, 즉 첨단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수술의 오차범위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전에는 CT나 X선 등을 이용해 인공관절 수술을 실시함으로써 오차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지만 이 장치를 통한 수술은 그런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인공위성의 위치추적시스템, 즉 GPS를 인공관절수술에 접목, 적외선 카메라로 수술을 해야 되는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 및 추적함으로써 과거와는 다른 정확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즉 컴퓨터를 통해 수술을 받는 환자의 뼈의 두께, 위치, 삽입되는 인공관절의 각도 등을 고려해 정확한 수술이 가능해졌으며 수술시 발생할 수 있는 근육 손상도 최소화한다. 고려대 안산병원 정형외과 이용석 교수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수술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줄일 뿐만 아니라 수술상처를 최소화함으로써 환자들의 통증을 줄이고 이후 회복기간도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덕분에 환자의 나이가 고령인 경우에도 수술이 가능해졌다. 출혈이 많고, 수술로 인한 부담이 컸던 과거의 수술방법보다 환자의 부담이 줄어들었으므로 수술이 가능한 연령대가 더 확대된 것이다. 이렇게 인공관절 수술은 첨단 장비와 더불어 최소침습수술 등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수술후 재활치료도 중요

인공관절 수술은 환자에게 부담이 없고 만족도가 큰만큼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있다. 하지만 수술을 받고 나서 방심한다면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의들의 설명이다. 이용석 교수는 “인공관절 수술을 잘 받고 이후 재활치료와 관리를 게을리하게 된다면 오히려 걸음이 불편할 수 있다. 즉 수술 후 꾸준한 재활치료와 자기관리가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특히 수술 후 재활치료는 꾸준히 실시해야 하며 수술 당일부터 수술후 6개월까지 실시해야 한다. 수술 후 5일까지는 가벼운 근력강화운동을 하게 되며 3~4일은 수동적 관절 굴절 운동기를 통해 90도까지 다리를 구부리는 치료를 받는다. 또 퇴원 후 6주까지는 120도까지 구부리며 목발을 이용, 체중을 실어 걷는 연습을 실시하며 6개월까지 하루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통해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 수술 후 쪼그려 앉는 자세나 방바닥에 앉았다 일어나는 생활방식은 가급적 피하고 침대와 양변기를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인공관절 수술은 수술뿐만 아니라 관리가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관심을 갖고 환자에게 최상의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안성형 및 사시, 망막 부분의 선두주자로 발돋움 하는 고려대 안산병원 안과



안과는 인간의 5대 감각기관 중에 하나인 시각을 전담하는 안구에 대한 전반적인 의료를 담당하는 진료부서라 할 수 있다. 이번 진료실 현장 소개에서는 안성형, 사시 및 망막 부분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루고 있는 고려대 안과를 탐방하고자 한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안과는 백세현 교수(안과 과장, 안성형 전문)를 필두로 김승현 부교수(사시, 소아안과 전문), 김성우 조교수(망막 전문)와 이종미(백내장, 안성형), 권성욱(각막, 백내장), 이화(백내장, 안성형) 임상강사 등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6명의 전문의와 3명의 간호사, 1명의 기사 등이 함께 수준 높은 진료를 통해 환자들이 만족하고 다시 오고 싶은 안과가 되기 위해 진료뿐만 아니라 연구와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1985년 병원 개원과 함께 개설되어 대학병원만이 할 수 있는 고난이 진단과 수술을 시행해 지역의료발전에 이바지했으며 이후 안산지역의 발전과 더불어 질환군이 변화함에 따라 안성형, 사시, 망막, 각막, 녹내장 등 그 다양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려대 안산병원을 찾는 환자의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병원에서 진료를 의뢰하는 건수 또한 많아졌다. 고려대 안산병원 안과는 이와 같은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여 진료 역량 및 시설을 충분히 갖추어 현재 많은 개인병원의 의뢰도 모두 수용할 수 있으며, 장비는 대학병원에서 갖추어야 할 만큼 충분히 확보한 상태로 의료진의 능력뿐만 아니라 장비 면에서도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의료진으로 백세현 교수, 김승현 부교수, 김성우 조교

수와 이종미, 권성욱, 이화 임상강사가 각기 특화된 진료분야에 대해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백세현 교수는 안성형, 미용성형, 녹내장 등을 김승현 부교수는 소아안과와 사시, 약시, 신경안과, 녹내장 등을, 그리고 김성우 조교수는 망막, 포도막 등을, 권성욱 임상강사는 각막, 백내장, 이종미, 이화 임상강사는 안성형, 백내장 등에 있어 심도 있는 안과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화된 클리닉을 살펴보면 안성형 클리닉, 사시 클리닉, 망막, 포도막 클리닉, 녹내장 클리닉, 백내장 클리닉이 있다. '안성형 클리닉'(백세현 교수)은 눈물흘림증, 안검내반과 속눈썹떨림, 노인성 안검이완증에 대한 수술과 안검수술, 눈꺼풀과 안와의 종양, 갑상선 안질환, 의안, 안와 골절 등에 대한 안과적 수술을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백세현 교수는 미국 미네소타 주 메이요 클리닉 연수를 통해 갑상선 안병증 및 안와 종양, 안검재건수술에 대한 최신지견을 습득하여 안성형 분야의 탁월한 연구 실적을 인정받아 세계 3대 인명사전 중에 하나인 '마르퀴스 후즈후(MARQUIS Who's Who)' 2007년 판에 등재되었으며 대한안성형학회 회원, 대한안과학회지 및 영문학회지 심사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국내외에서 안성형 분야의 차세대 대표주자로 손꼽히고 있다. 또한 '사시, 소아안과 클리닉'(김승현 부교수)은 다양한 종류의 소아 및 성인사시(안구정렬 이상)를 수술적 치료를 통해 교정하고 있고 소아 시력발달에 이상이 있는 약시치료를 기존의 가림치료에 약물치료를 국내최초로 도입하여 훌륭한 치료성과를 거둔바 있다. 특히 김승현 교수는 인디애나대학 소아안과병원 연수를 통해 소아 백내장 수

술 및 시력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최신지견을 습득했으며 이때 연구한 "소아백내장에서의 입체시와 관련된 요인분석"이란 논문은 영국안과학회지에서 가장 많은 독자가 읽은 논문 1위에 선정된 바 있다. 현재 한국사시소아안과학회 총무이사로 활동 중이고 미국소아안과학회지, 영국 및 캐나다 안과학회지 심사위원으로도 선정되어 국내외에서 사시소아안과분야를 이끌고 있는 교수라 자부한다. '망막, 포도막 클리닉'(김성우 조교수)은 안구의 뒤쪽 내벽에 벽지처럼 붙어 사물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신경막인 망막의 선천적 질환, 외상 등으로 인한 변성, 염증, 황반부 변성, 박리, 신생물, 외상 등을 치료하며 유리체 분야에서는 후유리체 박리, 유리체혼탁, 외상, 선천이상(유리체동맥잔류, 일차유리체증식)등을 다루고 있다.

녹내장클리닉은 안과질환 중 가장 무서운 질환인 안압상승으로 인한 시력상실을 초래하는 녹내장을 진단, 치료하는 전문클리닉으로 안압의 정밀검사나 시간에 따른 안압의 변화에 대한 빈번하고 정확한 검사 및 치료 후의 약물에 대한 반응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눈속의 시신경이 얼마나 고장났는가를 보는 안저검사 및 촬영과 녹내장의 조기진단과 치료를 위한 시신경유두 분석과 자동시야계검사, 시기능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치료는 약물치료와 레이저치료, 그리고 수술적 치료 등을 시행하고 있다. 백내장클리닉은 투명한 수정체가 백태가 하얗게 끼어 마치 창문에 성에나 수증기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이는 백내장을 진단, 치료하는 클리닉으로 백내장 수술을 통해 혼탁해진 수정체를 인공수정체로 교환해 백내장을 근본적으로 치료한다. 최신 초음파 유희흡입기를 갖추고 소절개 수술 및 접는 인공수정체 삽입 등 최첨단의 방법으로 백내장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세분화된 진료역량을 갖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안과는 향후 발전의 토양을 이루기 위하여 연구하고 실험하며 항상 기초에 충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환자의 편에 서서 한 번 더 생각할 줄 아는 안과의사'를 모토로 삼고 임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향후 각막, 녹내장의 교수진을 더욱 보강하고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며 안압, 구로병원 안과와 유기적인 임상정보 공유와 치료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국내외의 앞서는 안 연구 기관과 공고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우수한 인력과 정보를 공유함으로 의료시장의 개방에 공격적으로 대처하고 환자 진료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글_ 원내기자 박경섭(시설팀)

성민이네 가족의 행복한 저녁식사

감각 신경성 난청으로 치료받고 있는 성민이 가족의 행복한 만찬

성민이네 가족이 오랜만에 함께 식사에 나섰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성민이 이렇게 세식구가 퇴원 이후 저녁식사를 초대받아 가벼운 발걸음으로 아웃백을 찾은 것이다. 성민이는 6살이 되던 해부터 귀가 잘 들리지 않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고 있다. 각종 정밀검사를 통해 성민이는 감각 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다. 이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성민이에게 눈에 보이는 보청기는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로 다가왔다. 성민이네 네 식구는 성민이의 치료를 감당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공장에 다니는 아버지와 성민이를 돌봐주는 어머니와 누나. 모두 쉽지는 않지만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성민이가 빨리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집안 사정이 그리 넉넉하지 못한 성민이네는 병원비 마련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가족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내듯 성민이가 빨리 건강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런 성민이 가족의 노력이 또 다른 결실을 가져왔다. 바로 안산병원과 사회 복지단체의 도움으로 성민이가 안산병원에서 건강을 찾을 수 있는 희망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웃백에서의 저녁 초대는 이런 성민이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기 위함이다. 아웃백과 안산병원이 마련한 이번 저녁 식사를 통해서 성민이네는 다시 한 번 따뜻한 봄기운을 만끽하며 있을 수 없는 즐거움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OUTBACK
STEAKHOUSE®



첨단 장비 통해 진단한 영상을 판독해 정확하게 병을 찾아내는 사람들 고려대 안산병원 영상의학과 판독실



영상의학과에 들어서자 많은 직원들이 각자의 일을 하면서 일상을 맞이하고 있었다. 접수하는 곳을 지나 들어간 곳은 판독실이다. 판독실에서는 여러 대의 컴퓨터에 환자들의 영상들이 띄워져 의료진들이 수많은 모니터 안의 영상을 보면서 열심히 판독을 하고 있었다. 판독실에는 12명의 교수님과 7명의 전공의가 근무한다고 한다. 판독실에서 사진을 먼저 찍고 인터뷰를 하기로 했는데, 사진을 여러장 찍는 동안에도 웃음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조용하지만 자유로운 분위기, 가족같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일하지만 맡은 바 자신의 업무는 스스로 척척 해내고 있었다. 6월 경에 야유회를 매우 기쁜 마음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작년에 야유회의 기억도 매우 즐거웠다고 회상하고 있었다. 래프팅을 갔을 때 다양한 직종이 어우러진 영상의학과 직원들이 함께 물에 빠지면서도 행복해 했던 순간을 잊을수 없다고 한다. 올해도 야유회를 다녀오면 풍성한 소식을 들려줄 예정이다.

영상판독에서 중재적 시술까지

판독실에서는 X-ray나 CT, MRI와 같은 영상을 판독하는 일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재적 시술로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치료를 하고 있다. 함께 초음파를 보거나, 투시검사를 하면서 환자 옆에서 직접 치료를 하고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영상촬영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분야인데, 농양의 크기가 작은 경우 수술을 하지 않고, 영상을 보면서 제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유방암도 같은 경우다. 종양의 크기가 작은 경우 맘모톰을 통해 제거한다. 혈관이 막혔을 때 뚫어주는 시술도 하고, 갑상선 낭종에 차 있는 액을 빼고 약을 주입해서 낭종이 자라는 것을 막아 수술을 하지 않게 해주는 경우도 있다. 과거에 수술로만 치료 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다니 내원하시는 환자분들께 기쁜 소식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연구, 진료,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

이러한 중재적 치료술은 값비싼 시술재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치료비가 없어 걱정하시는 경우를 볼 때 가장 안타깝다고 한다. 그래서 꼭 시술이 필요했던 환자가 가정형편이 어려워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엔 사회사업팀과의 협조를 통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도움을 구하기도 한다. 이런 도움을 통해 치료를 받고 완쾌되신 모습을 보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보람을 느낀다고 판독실 사람들은 말한다. 요즘 영상의학과는 다른 과와 함께하는 다기관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2008년 한국유방암학회지에 실린 논문 “A Comparative Study of Palpable and Nonpalpable Breast Cancers determined by Ultrasonography” 도 영상의학과를 비롯하여 혈액종양학과, 유방내분비외과 등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이뿐만 아니라 연구, 진료 그리고 교육을 최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있고, 계획에 맞게 진행을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영상의학과 1년차 김희선 전공의의 일과만 들여다 봐도 이 세 가지 목표가 얼마나 숨 가쁘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다. 김희선 전공의는 매일 다른 과와 함께 토론회를 진행하고 그에 대한 연구와 임상적인 질문, 답변 시간을 갖고 의논하며, 부족한 부분을 공부한다고 했다. 영상의학과에 보금자리를 틀고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연구자이자 학자 느낌에 전문가의 냄새를 물씬 풍기는 그녀에게서 열정이 느껴졌다.

모든 환자들의 관문, 영상의학과 판독실

영상의학과 판독실은 모든 환자들이 한 번은 거쳐 가는 의례적인 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즘 어떤 병이든 진단하기에 앞서 그 실체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진단하기 어렵고, 진단한 후에도 병소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영상촬영과 판독을 통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각 진료과마다 서로 다른 요구사항이 있고, 각기 다른 입장이 있기에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외래 환자들의 경우에도 접수부터 시작해서 진료, 각종 검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영상의학과를 찾게 되는데 기다림의 연속에 지쳐계시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고 한다. 최대한 환자들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지만, 한 치의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곳이다보니 좀 더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시간이 조금 늦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해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애쓰는 영상의학과 판독실 식구들의 노력이야말로 이 부서를 빛내는 또 다른 가치가 아닐까 생각한다. 🏥

글 _ 원내기자 한혜영(간호부)

동호회 탐방

‘영화’ 라는 끈으로 맺어진 소중한 인연, 『영화사랑』



‘영화사랑’은 2008년 12월에 창단된 고려대 안산병원의 교직원 영화동호회로,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매번 모임마다 서른명 이상이 꾸준히 참석할 정도로 열정적이다. 50여명의 교직원으로 구성된 영화사랑 회원들은 매월 네 번째 주 목요일 저녁마다 함께 모여 식사도 하고 영화도 보며 친목을 쌓고 있다. 영화는 동호회 회원들 다수가 원하는 것으로 미리 선정해 관람하는데, 선택된 영화를 미리 본 사람들은 동일 시간대의 다른 영화를 볼 수도 있다. 영화동호회에서 영화만 보고 끝난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영화사랑은 교직원포털 내 동호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영화 감상평을 올려 서로의 생각도 나누고 상황에

따른 적합한 영화를 추천해주기도 한다.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동료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친분을 쌓고 이야기를 나누며 관심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것도 영화사랑의 장점 중 하나다.

강향숙(간호부 외래특수간호팀장) 동호회장은 “항상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는 동호회원 분들 덕분에 어렵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 특히 회원들 간 중간연락담당자로서 영화를 선정하고 예약하느라 늘 발로 열심히 뛰어주는 내시경실 이기선 업무원과 맛집을 찾아 안내하느라 수고가 많은 101병동 박민숙 간호사에게 늘 고맙다” 며 회원들에 대한 고마움과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그동안은 우리가 목요일 저녁에 영화를 보기 때문에 다음날 출근을 위해 영화만 보고 헤어져서 안타까웠다. 가능하다면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토요일에 조조를 보고 점심

을 먹으며 관람한 영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갖고 싶다” 고 말했다.

또한 강향숙 동호회장은 영화사랑에 여성회원들이 대다수인데, 편하게 영화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남성 교직원분들도 부담 갖지 않고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앞으로는 영화 외에도 뮤지컬, 연극 등 관람의 폭을 넓혀볼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니,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화사랑 홈페이지 portal.kumc.or.kr/club/movielove에 가입하거나 총무인 간호부 이종란 교육수간호사에게 직접 신청하면 된다. 🏥

문의_이종란 031)412-5419



이웃과 함께 하는 온누리병원



환자들에게 수준높은 진료를

안산지역을 선도하는 핵심병원으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살핀다는 이념 하에 참사랑을 실천하고 사랑과 봉사를 함께 하는 온누리병원을 찾았다. 이 병원은 이웃의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참다운 병원,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통해 믿음과 희망을 주는 병원이 되고자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

다. 특히 환자들에게 진료의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웃음과 미소로 다가갈 수 있는 문화를 이루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문진료 통해 환자에게 다가가

온누리병원은 단원구 와동 체육공원 앞에 위치한 지상 8층, 지하 3층의 175병상을 운영하는 병원이다. 종합병원에 비하여 큰 규모는 아니지만 내과 1.23과, 정형외과 1.2과, 신경외과, 일반외과, 영상의학과, 마취과 등 지역중심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진료과와 전문 의료진으로만 구성된 병원이라는데 의미를 둔다. 또한 응급실에서는 24시간 전문의가 상주하며 진료를 하고 있어 자칫 소홀할 수 있는 응급환자의 진료수준을 끌어 올리고 있으며 끊임없이 고객만족 실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CS 전담팀을 운영하여 보이지 않는 환자의 마음까지 읽어내려 노력하고 있다.

최신장비는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하는데 필수요소다. MRI는 물론 CT, 초음파를 기본 장비로 갖추고 있고 특히 만성통증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인 '체외충격파 치료기'는 오십견이나 테니스 엘보 등 고질적인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환영하는 치료 장비라 한다. UBT 장비는 힘들고 어려운 내시경 검사 없이 호흡만으로 헬리코박터균 감염을 확인 할 수 있는 장비로 어린이나 노약자도 안전하게 검사하고 신속하게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장비이다.

'고객이 만족하는 병원, 직원이 만족하는 병원'

온누리병원은 최신장비와 함께 환자가 만족하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병원을 만들어 환자와 고객이 모두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병원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교육하고 노력하는 열정이 가득한 온누리 병원에서 지금까지의 병원과는 다른 새로운 병원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 건 당연한 듯하다. 병원입구를 들어설 때 미소로 맞이했던 직원의 밝은 목소리를 뒤로 하고 문을 나서서 발걸음이 저절로 가벼워진다. 

글, 사진 _ 원내기자 강봉구(산업의학센터)



헬스가이드 2

기침할 때는 손 말고 소매로 가려야~ 기침 예절을 지키자! 전염 막아, 보건 기본이 더 중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신종 플루(H1N1 인플루엔자) 2차 감염 환자로 확진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걱정으로 병원에 문의를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이미 수천명의 사람들이 신종 플루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이 되고, 신종 플루로 확진된 사람만도 5월 5일을 기준으로 1,490명이 넘어가니 걱정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 더군다나, 예방 백신을 생산하기까지는 6개월 정도가 걸린다는 예상이고, 치료제로 기대되었던 약들도 내성이 보고되고 있어 보건 관계자들도 걱정이 태산 같다. 이러한 때에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해답은 오히려 간단한 데 있다. 공중 예절을 잘 지키면 된다. 공중 예절을 잘 지키면 신종 플루 확산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신종 플루를 포함한 모든 호흡기 질환의 전염 경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나오는 미세 침방울 속의 바이러스나 세균 때문에 감염이 되는 비말 감염이고, 다른 하나는 콧물이나 침 속의 균이 손에 묻었다가 다른 사람으로 전염되는 직접 접촉 감염이다. 그러니 이 두 가지 경로를 차단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감염 경로를 차단할 수 있는 기본 공중 예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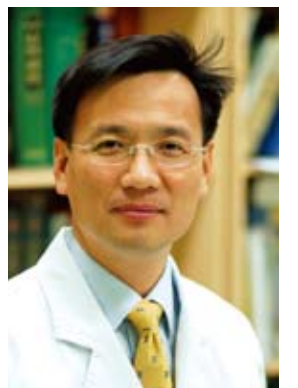
을 지키지 않아서 감염 기회를 줄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기침을 할 때에는 반드시 가리고 해야 한다. 휴지가 준비되어 있거나 곧바로 손을 씻을 수 있는 경우에는 휴지를 쓰거나 손으로 가린 후 바로 손을 씻어도 되지만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그렇게 준비된 경우가 많지 않다. 그럴 때의 요령은 팔꿈치 안쪽의 옷이나 소매로 가리고 기침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손바닥으로 가리거나 주먹 위쪽을 입에 대고 가리는 사냥만 하고 기침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기침을 한 후 손으로 하는 행동을 생각해 보자. 문고리를 돌리고, 문을 열며, 전철 손잡이를 잡고, 얼굴과 코를 만지며, 악수를 한다. 기침을 손으로 가리면 나온 미세 분비물을 다른 사람에게 묻힐 확률이 높은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 의외로 홍보가 잘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기침을 할 때에는 손이 아닌 팔꿈치 안쪽의 옷으로 가려야 한다. 두 번째는 자주 손 씻기이다. 의료인의 손을 통해서 감염이 전파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확인된 후 의료인들은 병원에서 손 씻기를 연습하고 서로 확인도 받는데, 아직 일반인들의 손 씻기를 보면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 손은 비누를 사용해서 구석구석 충분히 씻어야 한다. 손가락을 깎지 까듯이 문질러서 손가락 사이를 씻어야 하고, 손톱 끝도 다른 손의 손바닥에 대고 문질러서 손톱사이도 씻어야 한다. 자주 그리고 확실하게 손을 씻으면, 직접 접촉 감염을 분명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5월 5일 현재 WHO는 신종 플루와 관련한 전염병 정보 수준

을 대유행(pandemic)이 임박했음을 뜻하는 5단계로 유지하고 있지만, 실상은 여러 대륙의 여러 나라에서 집단 발생을 하고 있는 대유행인 6단계인 상태에 있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이미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것을 차단하는 데 실패했다는 얘기가. 하지만, 낙관적인 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의사들은 신종 플루의 감염력은 비교적 높지만, 치명율은 걱정했던 것보다는 낮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신종 플루의 근원지인 멕시코에서의 사망이 한동안 보고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의 신종 플루 확산은 보건 전문가들의 역량과 함께 일반인들의 보건 의식과 기침 예절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지난 세기에 대유행해서 수백만 명의 사망자를 낸 콜레라나 장티푸스 같은 전염병도 개인의 치료보다는 수도 보급이나 공중위생 개선과 같은 공중보건의 개선으로 극복되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거나 손 잘 씻기 같은 위생 조치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또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행동이다. 보건 전문가들이 적절히 대처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노력한다면, 우리나라는 큰 피해 없이 신종 플루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도움말 _ 가정의학과 윤도경 교수

위대한 군주 세종대왕,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다. 아이들과 함께 역사속 여행 떠나볼까요?! 여주 영릉



세종대왕, 선 제4대 왕(재위 1418~1450)으로써 젊은 학자들을 등용하여 이상적 유교정치를 구현하였으며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측우기 등의 과학 기구를 제작하게 하며, 6진을 개척하여 국토를 확장하고 쓰시마섬을 정벌하는 등 정치·경제·문화면에서 훌륭한 업적을 남겼으며 광개토대왕과 함께 우리 역사를 빛낸 군주이자 성군이였다.

세종대왕하면 가장 먼저 훈민정음이 떠오를 것이다. 업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거라 생각한다. 그 많은 업적 중에 한글창제는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 할 수 있다. 세종대왕의 대표적인 업적들을 크게 정리해보면 민족 문화의 터전 마련, 국토 정비, 과학기구의 발명, 방대한 편찬 사업 등이 있다. 만 원권 지폐의 주인공이자 지폐 뒷장에도 있는 과학기구 역시 세종대왕의 또 다른 업적이다. 세종대왕은 1442년 이천·장영실로 하여금 우량 분포 측정기인 측우기를 제작하게 했는데, 이는 1639년 이탈리아의 B.가스텔리가 발명한 측우기보다 약 200년이나 앞선 것이라고 한다. 이밖에도 궁중에 과학관인 함경각을 설치하고 과학기구를 비치하

게 했고, 혼천의·해시계·물시계 등의 과학기구를 발명하였다.

과학기구의 발명은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 해시계, 물시계, 천문의기, 기후측정기가 있다. 해시계는 현주일구, 양부일구, 천평일구, 정남일구가 있고, 물시계는 자격루, 천문의기로는 만원권 지폐 뒷장에 있는 혼천의(천체의 운행과 위치를 측정)간의, 관천대, 규표 등이 있고 기후측정기는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알아보는 풍기대, 하천의 수위를 보는 수표, 강우량을 측정하는 측우기 등이 있다. 세종대왕의 업적은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알고 공감하겠지만 아이들에게 역사의 유산을 보여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를 갖는 것은 어떨까. 이런 자리를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세종대왕이 모셔져 있는 여주 영릉이다. 영릉은 세종대왕릉으로 세종대왕의 업적을 알 수 있는 전시물들을 관람할 수 있는 곳이다. 탁 트인 자연과 함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영릉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또한 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또다른 여윌 일 것이다. 

글, 사진_원내기자 박준우(전기실)

찰칵 안산병원 찰칵 !!



2009 간호봉사주간, 안산병원을 흔들다

간호부(실장 김정숙)는 5월 11일(월)부터 15일(금)까지 '2009 간호봉사주간' 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일주일 동안 자선 바자회를 비롯해 무료 건강상담, 심폐소생술 교육, 병동별 봉사활동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환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다. 또한 이런 이벤트와 더불어 Vision 2015선포식 및 간호사 총회도 함께 열렸으며, 간호부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출발을 알렸다. 일주일 동안 안산병원 간호부의 활약을 사진으로 추억해 본다.



친절리더팀, 친절리더 화합한마당 개최



고려대 안산병원 친절리더팀은 지난 4월 23일 지산리조트에서 '친절리더 화합한마당'을 개최하고 친절리더에 관한 강의, Action Play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안산병원의 친절마인드를 끌어올리고 교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친절리더의 이번 행사는 1기, 2기 친절리더들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모든 참가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 강의에서는 ICS 컨설팅의 최지성 강사가 '고객 만족 경영을 위한 창조적 사고'를 주제로 강의를 실시했다. 또한 모든 친절리더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Action Play에서는 게임을 통해 친절의 의미를 알 수 있는 자리가 진행되었다. 

'사랑의 헌혈증' 백혈병 환아들에게 전달



안산병원(원장 최재현)은 5월 4일 헌혈 행사를 통해 기부 받은 헌혈증을 백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교직원 사랑의 헌혈증 전달식'을 개최했다. '사랑의 헌혈'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던 헌혈행사는 격월로 개최되었으며, 이 행사를 통해 모인 헌혈증 88장이 이번 전달식을 통해 전달된 것이다. 한편 이번 전달식을 통해 헌혈증을 전달받은 환아는 이시은(13세), 김은희(15세), 박진주(14세) 환아로 안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들이다. 이시은 환아는 지난 2009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았으며 김은희 환아와 박진주 환아는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으로 진단 받았다. 전달식에 참가한 박진주 환아는 "병원 식구들이 헌혈증을 모아주셔서 정말 고맙다.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있는 만큼 모든 분들이 응원해 주는 걸로 믿고 빨리 건강해 지도록 노력하겠다" 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안산병원, 어버이날 기념 꽃과 카드 전달



고려대 안산병원은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해 원내 환자 400여명에게 정성스럽게 마련한 카네이션과 손수 쓴 카드를 전달했다. 이번 카네이션은 어버이날을 맞이해 안산병원이 정성스럽게 마련한 것으로 어버이날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 환자들에게 전해졌다. 특히 모든 병동을 돌며 환자들에게 어버이날의 감사인사와 함께 직접 전달해 모두에게 기쁨을 전해줬다. 카네이션을 전달받은 환자들은 고마운 마음과 함께 이렇게까지 신경써줄 줄 몰랐다고 환한 미소를 지었다. 

어린이날, 안산병원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선물 전달



고려대 안산병원은 어린이날을 맞이해 지난 5월 4일 안산병원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해 큰 기쁨을 전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김정숙 간호부장, 임승우 총무팀장은 "어린이날을 맞이해 이렇게 선물을 전달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다. 어린이집 아이들 모두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나길 바란다" 며 짧은 인사를 전했다. 

장 등 병원 관계자가 어린이집을 방문, 아이들 모두에게 일일이 선물을 전달했으며 선물을 전달받은 아이들은 '고맙습니다'란 인사와 웃음을 선사해 주위를 기쁘게 했다. 또한 선물전달식에 이어진 아이들의 장기자랑 역시 모두에게 웃음꽃이 피어나는 시간을 선사했다. 행사에 참가한 김정숙 간호부장은 "어린이날을 맞이해 이렇게 선물을 전달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다. 어린이집 아이들 모두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나길 바란다" 며 짧은 인사를 전했다. 

최재현 병원장, 대한장연구학회장 취임



안산병원 최재현 병원장이 지난 4월 18일에 개최된 대한장연구학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진운태(고대 안암병원 소화기내과)총무

이사를 비롯한 제4기 임원진이 동시에 선출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대한장연구학회는 지난 88년 장질환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설립된 IBD연구회로 출발해, 1999년 장질환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새로운 의학적 지식의 도입 등을 목적으로 '대한장연구학회'를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대한의학회 산하 공식학회로 인정받았으며, 대한장연구학회의 공식 학술지 'Intestinal Research'는 내과 전문의 및 분과 전문의의 자격 인정 학술지로 승격돼 학회의 공신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지역 병·의원과 함께하는 세미나 개최



고려대 안산병원은 4월 23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안산병원 2층에 위치한 대강당에서 병·의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병·의원 관계자와 효과적인 응급중증환자의 관리법 및 이송체계에 대해 논하고 응급의료비용의 미수금 대불제도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마련됐으며 안산병원 박정욱 진료부원장 및 교직원, 협력병원과 인근 병·의원 관계자 등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이루어졌다. 2시간여 동안 실시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QI팀 정성영 간호사의 '고대안산병원 응급 중증환자 적정관리 및 이송체계'와 보험심사팀 이인영 파트장의 '응급대불 청구 및 삭감방지' 강의를 진행했으며, 세미나를 마친 후에는 안산병원의 응급의료센터와 영상의학과, 종합검진센터 등을 둘러보며 안산병원의 검사 장비 및 최신 시설을 살펴봤다. 

고려대 안산병원은 4월 23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안산병원 2층에 위치한 대강당에서 병·의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병·의원 관계자와 효과적인 응급중증환자의 관리법 및 이송체계에 대해 논하고 응급의료비용의 미수금 대불제도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마련됐으며 안산병원 박정욱 진료부원장 및 교직원, 협력병원과 인근 병·의원 관계자 등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이루어졌다. 2시간여 동안 실시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QI팀 정성영 간호사의 '고대안산병원 응급 중증환자 적정관리 및 이송체계'와 보험심사팀 이인영 파트장의 '응급대불 청구 및 삭감방지' 강의를 진행했으며, 세미나를 마친 후에는 안산병원의 응급의료센터와 영상의학과, 종합검진센터 등을 둘러보며 안산병원의 검사 장비 및 최신 시설을 살펴봤다. 

간호부, Vision 2015 선포식 및 간호사 총회 개최



안산병원 간호부(실장 김정숙)는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2009 간호봉사주간'을 맞이해 14일에는 2시 30분부터 2시간여 동안 Vision 2015 선포식 및 2009년 간호사 총회를 개최했다. 제1부 Vision 2015

선포식에서는 김정숙 간호실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우수 직원과 부서에 대한 시상식, 경과보고 및 비전선포 등이 진행됐다. 간호부에서는 '세계로 도약하는 인간중심의 참 간호부'라는 비전을 세우고 모두 함께 비전을 제창하며 더욱 발전하는 간호부를 만들기 위한 의지를 굳건히 했다. 또한 Vision 2015 선포를 축하하기 위해 63병동과 응급의료센터, 수술실 간호사들의 축하무대가 이어져 간호부 전체의 화합 및 단합의 시간을 가졌다. 

소아환우를 위한 '찾아가는 도서관서비스' 실시



안산병원은 지난 4월 14일부터 단원구 고잔동에 위치한 '이야기숲 어린이도서관'과 함께 소아환우를 위한 찾아가는 도서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찾아가는 도서관서비

스는 몸이 불편한 소아환우들에게 더 많은 책을 접하고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독서를 통해 꿈과 희망을 주고자 실시하게 됐다. 찾아가는 도서관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2시간씩 지역사회 주민으로 구성된 도서관측 자원봉사자와 안산병원 자원봉사자가 63병동을 방문해 이루어지며, 책을 읽기를 원하는 환자와 보호자는 누구나 한 번에 4권까지 빌릴 수 있다. 대출 서비스 외에도, 병실마다 소규모로 '책 읽어주는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

‘최고를 지향하는 인간중심의 참 병원’

고려대 안산병원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평생건강의 동반자 고대안산병원 종합검진센터

지금!! 별관 1층 종합검진센터를 방문해주세요

종합건강진단 프로그램

- 기본 종합 검진
- 효도검진
- 예비부부 검진
- 암 정밀검진(Pet-CT)
- CEO 종합검진
- 소화기 / 폐 / 심장 / 뇌졸중 / 척추 정밀검진

상담 및 예약

전화예약 031)412-5865, 5866
인터넷예약 health.kumc.or.kr

고객을 감동시키는
고려대의료원의 변신

Medical Pride KUMC for
Global KU - Frontier Spirit

[전대미, 한달·구로·안산병원의 의료 인프라]

5,200 여명의 세심한 서비스
안산병원 2,300 여명 / 구로병원 1,600 여명 / 전대미병원 1,250 여명

2,577 개의 첨단 병상
안산병원 800 개 / 구로병원 1,050 개 / 전대미병원 560 개

33 만㎡의 갤러리

처음 보는 병원인데,
누구세요?



고려대학교안산병원
 KOREA UNIVERSITY ANSAN HOSPITAL

의료진을 비롯한 모든 직원이 인간중심의 참의료를 실현하는 병원 -
 모든 환자와 고객에게 호텔처럼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
 어디서나 직분을 감상할 수 있어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경리리 같은 병원 -
 고령인 암환자 무효치료, 무즈백 마술아 치료지원 등 인류애를 실현하는 병원 -
 스리랑카 쓰나미, 파키스탄 지진 등 전세계 긴급구호에 출전수병하는 병원 -

고객을 위해 모든 것을 변화시킨
고려대 안산병원입니다

· 긴급수술에서 수술까지 One-stop 공급체계 구축
 · 리니악, PET CT, 3.0T MRI, 64 채널 CT 등 첨단 진료장비 도입
 · 급성비율증 대처 A등급 병원(2007년 심정전 선정)
 · 희대시술 맞춤 심혈관센터 등 질환별 특성화센터 운영

www.kumc.or.kr






대표전화: 1577-7516 응급실: 031)412-5381 FAX: 031)412-5659